

광주·전남 주유소 기름값 ‘뚝뚝’...9주 연속 하락

9월 넷째주 휘발유 값 각 1천576원·1천615원

7월 넷째주 비경유 가격 ℓ 당 각 121원·100원 ↓

광주·전남지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9주 연속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9월 넷째 주 광주지역

주유소 휘발유 ℓ 당 판매 가격은 1천576원으로, 전주보다 20.33원 하락했다. 광주지역 휘발유는 올해 7월 넷째 주 ℓ 당 판매 가격이 1천697.45원에서 9주 연속 떨어지는 추세다.

광주지역 경유도 휘발유와 같이 7월 넷째 주 ℓ 당 판매 가격이 1천530.41원에서 꾸준히 떨어져 9월 넷째 주 1천409.78원을 기록, 9주간 120.63원이 하락했다. 전남지역 9월 넷째 주 주유소 휘발유 ℓ 당 판매 가격은 1천614.97원으로 전주(1천632.09원)보다 17.12원 떨어졌다. 경유도 ℓ 당 판매 가격이 같은 기간 1천450.51원에서 1천468.05원으로 17.99원 하락했으며 7월 넷째 주 ℓ 당 판매 가격

은 1천500.84원으로 9주 전과 비교하면 100.33원 저렴했다. 지역별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서울이 직전 주보다 15.9원 내린 1천688.7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가 14.0원 하락한 1천599.5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ℓ 당 평균가는 1천570.3원이었다. 전국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 당 162원 하락한 1천435.2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 허리케인으로 인한 원유 생산 차질, 중국 경기부양책 발표, 중동 지정학적 위기 고조 등에 소폭 상승했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 대비 배럴당 0.4달러 오른 74.1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6달러 오른 79.8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3달러 오른 84.7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회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2주간 올랐으나 국내 제품 가격은 그동안 내린 관성이 있어서 다음 주에 당장 상승세로 전환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하락 폭이 둔화하거나 변동 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안태호기자



광주신세계가 온라인에서 MZ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새로운 브랜드를 오프라인 런칭한 가운데 29일 신관 지하층에 신규 오픈한 SATUR(세터) 매장에서 직원이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세터’·‘드로우핏’...광주신세계 “MZ 트렌드 이끈다”

인기 신규 브랜드 10여개 입점...할인·키링 증정 등 행사 다채

광주신세계는 29일 “최근 신관 지하 1층에 MZ세대를 타겟으로 하는 브랜드 매장 10여개가 입점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27일 신관 지하 1층에 ‘세터(SATUR)’, ‘드로우핏’ 등 MZ세대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들을 지역 최초로 선보였다. 세터는 ‘토요일의 파스한 여유로움을 선물한다’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시작된 브랜드다. 지난 2020년 서울에서 시작해 2년 만에 연 매출 100억대를 올렸다. 서울 성수동과 한남동 등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세계 센텀시티점 외에도 다수 백화점에 입점할 만큼 인기가 높

다. 드로우핏은 2014년에 시작된 브랜드로 연간 매출 300억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재킷, 코트, 니트 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디자인을 선보여 고객들의 수요가 꾸준하다. 드로우핏은 내달 10일까지 상하의와 잠자는 5%, 아우터는 10% 할인하고 10만원 이상 구매 시 키링을 증정한다. 다양한 문화에 녹아있는 핵심적인 코드(Code)들을 재해석해 시각화(Graphy)한다는 뜻을 지닌 코드그라피는 맨투맨 등 기본 아이템에 시그니처인 ‘CGP’ 스퀘어 로고를 이용한 다양한 가을 컬렉션을 선보인다. 내달 6일까지 세트 구매 시 30% 할인

하고 F/W시즌 제품을 20% 저렴하게 만날 수 있다. 7만원 이상 구매 시 스물로고 2백 티셔츠를 증정한다. 의류 브랜드 편집숍인 하인더에서는 ‘더아이덴티티 프로젝트’, ‘알리스’, ‘바사카’ 총 3개의 브랜드를 만나볼 수 있다. 2022년 런칭한 후 SNS에서 유명세를 탄 브랜드로, 희소성 있는 고퀄리티 원단과 독특한 디자인의 아이템을 선보인다. 각 브랜드별로 더 아이덴티티 10%, 알리스, 바사카 각각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정일 광주신세계 신관팀장은 “신관 지하 1층에 다양한 브랜드들을 채우면서 공간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영예선의 트렌드를 이끄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솔기자

“재생에너지 산업 규제 풀어 활성화 나서야”

광주경총, 지역균형발전 촉구 성명서 발표
전력 산업·호남 재생에너지 허브 육성 주장

광주경영자총협회가 재생에너지 산업 규제를 풀어 관련 산업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경총은 29일 지역균형발전 촉구 성명서를 통해 “5년 사이 광주·전남 인구는 10만명 줄었고 매년 1만명의 청년이 지역을 떠나고 있으며 호남 재생에너지 산업은 인허가 중단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지역의 현주소를 설명했다. 이에 호남지역의 우수한 재생에너지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광주경총은 “전남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와 발전량은 전국 최고 규모이지만 정부는 2035년까지 지역 재생에너지 발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라며 “전력 이송은 7조9천억원의 구

축비용이 필요하고 지역주민 갈등도 우려되며 향후 전력망 운영 시 연간 1조7천억원 이상의 전력 손실액이 발생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이를 활용하면 광주글로벌모터스(GGM 7천억원) 규모 공장을 10개 이상 만들 수 있고, 재생에너지 산단을 조성해 전기 소모가 많은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공장을 유치해 지역민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역 생산 전력을 활용한 산업육성을 촉구했다. 또 광주경총은 “호남은 풍부한 일조량과 넓은 평야, 긴 해안선을 가진 재생에너지 보고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인허가 중단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이 멈춰 있다”면서 “향후 기

업의 RE100 참여를 대비하고 전기차,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장치 등 에너지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지역 재생에너지의 집중 육성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경총은 “전력이송 예산 7조9천억원과 매년 전력손실액 1조7천억원을 지역에 활용해 전기소모가 많은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고, 에너지연관산업을 육성하면 광주·전남에 수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청년 유출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과 출산을 확대하여 이어져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이 실현될 것”이라며 호남지역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광주경총은 “하루라도 빨리 지역 정치가와 행정가 그리고 기업인이 모여 광주·전남 미래세대를 위한 지역경제 발전의 청사진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재만기자

광주은행, 제31사단 위문금 1천만원 전달

광주은행은 다가오는 국군의 날을 맞아 지역 향토부대인 제31보병사단을 방문해 군부대장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담아 1천만원의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위문금 유한히 험겨웠던 무더위에 지역 방호와 대민지원을 위해 헌신한 군장병들을 직접 만나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전달된 위문금은 부대 발전과 사기 진작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언제나 지역의 국토방위에 힘쓰는 향토부대장병

여러분 덕분에 국민들은 마음 편히 일상을 유지할 수 있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광주은행 또한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ESG경영을 바탕으로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및 금융지원에 더

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정기적으로 제31보병사단을 위문 방문해 군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으며, 제31보병사단과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캐시백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카드를 출시하는 등 금융우대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임재만기자

여름철 침수대비 행동요령

침착하게 # 안전하게 # 신속하게

보행 시, 침수지역 및 하수도, 맨홀 근처 접근 금지

지하공간 이용 시, 바닥에 물이 차오르면 즉시 대피

차량 이용 시, 지하차도 진입 금지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변하기 쉬운 신선제품

처음 그대로 신선도 유지 제품 개발 화재!

포도, 새우, 김치, 깍두기, 과일, 야채, 소고기, 굴비, 치즈, 조개, 생선 등 얼음 아이스팩을 넣어도 변질되기 쉬운 제품 1일이 넘으면 안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젠 걱정 끝!

푸른도깨비 1팩만 넣으면 5일동안 신선함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품이 개발되어 신선 제품을 택배로 발송하는 사업후 여러분의 근심을 덜어드립니다.



1팩을 넣어서 택배를 발송하면 5일동안 변질이 없습니다. 처음 그대로 신선함을 유지시켜 줍니다. 1팩당 500원

푸른도깨비를 택배에 1팩을 동봉하여 발송하면 5일동안 변질없이 처음 그대로 유지됩니다.

푸른도깨비 실제사용과 비사용의 비교

식빵 부패실험 비교

방부제 미처리 식빵은 2일만에 곰팡이가 발생함. 푸른도깨비는 어떠한 세균도 발견하지 않는다.



1일차



2일차



4일차

사과 부패실험 비교

푸른도깨비를 처리한 농산물 및 과일에서는 곰팡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2일차



4일차



5일차



7일차

공장, 택배물류센터 환영!

무료 신청

택배비 소비자 부담, 본사 메일로 신청 yunanbio@naver.com

전국 시도 총판 모집

대양식품(주)

본사 080-374-5046

기술제휴 | 자연과생명연구소

광주지사 010-3738-8989

062) 525-7585